

“정쟁보다 경제… 일하는 국회 만들어라”

기업 유치·정부 지원 이끌어 미래 먹거리 청사진 마련
야권 치열한 경쟁 통해 ‘호남 주도 정권’ 창출 나서야

오늘 개원 20대 국회에 바란다

20대 국회가 30일 개원했다. 20대 국회를 바라보는 지역 민심은 이제 그만 ‘정쟁’에서 벗어나 ‘협치’를 통해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관련기사 3·5면>
어느 정당이 자책적으로 과반을 이룰 수 없는 여소야대의 절묘한 3당 구도라는 점에서 치열한 경쟁과 적극적 소통으로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견인하라는 것이다. 그동안의 국회가 아닌 과감한 정치 개혁을 통해 소외 계층의 눈물을 닦아주고 민생과 함께하는 20대 국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총선을 통해 20년 만에 3당 구도를 만들어 낸 호남 민심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분발을 요구하고 있다. 호남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선봉에 서고 호남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정부 지원 등을 이끌어 내는 한편 호남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미래 일자리 창출 등에 나서라는 주문이다.
호남이 그동안의 침체를 벗어나 경제적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면에 나서라는 것이다.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하듯,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에서는 20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여야를 떠나 ‘호남의 발전’이라는 화

두로 포럼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된다.
이와 함께 호남 민심은 야권에 치열한 경쟁을 통해 정권 교체의 길을 개척해 나가라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보여주는 정치적 비전에 따라 대선을 앞두고 지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호남에서 어느 정당도 압도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의 유희성은 그 어느 때 보다 크다.
이는 호남 민심이 대선을 앞두고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다. 호남 민심의 지지 여부가 대선 판도를 좌우하고 야당의 정치적 생존 여부마저 결정지울 수 있는 현실이다. 이에 호남 주도의 정권 교체에 대한 목소리도 울림이 크다. 연립 정부를 구성하던지 후보 단일화를 하던지 호남 정치권이 주도해서 정권 창출에 나서라는 것이다.

정치적 안주에 급급, 변방에 머물기 보다는 과감한 ‘도전과 응전’을 통해 정치력을 키우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또 정치적으로 반복하기 보다는 ‘열고 밀어주는’ 문화를 정착시키며 호남 대선 주자를 육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경제계, 학계 등과 머리를 맞대고 호남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청사진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



곡성은 지금 ‘장미왕국’ 29일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에서 열린 ‘2016 곡성 세계장미축제’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그윽한 장미꽃 향기를 맡으며 장미정원을 산책하고 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미로처럼 뻗은 장미정원의 모습.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창출하고도 제대로 된 호남의 미래를 열지 못한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열고 밀어주는’ 문화를 정착시키며 호남 대선 주자를 육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는 호남의 발전과 정권 창출을 견인해야 한다는 막중한 과제가 주어졌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 노조 ‘전공노’ 가입 시정 차질 우려가 현실되나

정부, 내년 예산과 연계 방침

광주시 노조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가입이 시 현안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광주시를 압박했던 것과 달리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되는 조짐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주에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위원회 일정이 확정되는 등 전공노 가입 사태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2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행자부, 기재부, 법무부, 경찰청 등 8개 부처·청 대표가 참석한 범정부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시의 전공노 대응 상황 등을 지켜본 뒤 내년 예산안 편성 등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현재 1조원 이

상 국비를 요청한 상태여서 정부 지원이 무산·축소되면 현안사업 추진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행자부는 광주시 3차례 공문을 보내 노조 사무실 폐쇄 등 행정대집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검찰에 고발된 노조원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대응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광주시의 최대 현안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예산 마련 등 시정 현안 차질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31일 노조 간부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대통령,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20대 국회 ‘대치’로 시작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전격적으로 재의결을 요구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당장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도 ‘협치’가 아닌 ‘대치’의 정국에서 첫 발을 내디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일단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라며 옹호에 나서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개정 국회법을 한껏 활용하려던 야권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야권은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 이후 자제해오던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판을 재개하는 등 여야 간의 대립 각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대

표의 청와대 회동 이후 조성됐던 ‘협치’의 분위기도 ‘입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와 이어 국회법 거부권 행사 등으로 사실상 물 건너가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3당은 또 박 대통령의 재의 요구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기로 합의하는 등 총선 정국에서의 분열을 딛고 개원 정국에서 ‘공동 전선’을 펼치기로 했다. 거부권 파동으로 인한 대치 정국으로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숨막히는 미세먼지 광주·전남 터널 속보다 심각

연일 미세먼지 최고값이 ‘나쁨 수준’ 이상을 기록하는 등 광주·전남이 미세먼지에 둘러싸여 있다. 월요일인 30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전방돼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주·전남에서 미세먼지(10μm이하 먼지) 최고값은 이날 새벽 4시 여수시 월내동 측정소가 기록한 156μg/m³이다. 전날인 28일도 미세먼지 일 최고값이 광주(오선동) 127μg/m³, 전남(여수) 173μg/m³을 기록했고, 지난 27일도 광주(오선동) 129μg/m³, 전남(여수) 157μg/m³을 보이는 등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렸다. 지난 26일에는 광주(건국동)의 미세먼지 농도 최고값이 171μg/m³까지 치솟기도 했다.
자동차가 오가는 터널 안의 미세먼지 농도가 m³당 100μg(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인 것을 감안하면, 최근 3~4일 지역 곳곳은 터널 속 대기질보다 훨씬 나쁜 상태에 놓였던 셈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최근 대기질이 나쁜 원인에 대해 “국내 대기가 정체돼 있어 이미 밀려든 중국발 스모그,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전남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끝으로 2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 출발하오니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학력 및 경력

- 담양 청평중학교
- 살레시오고등학교
- 고려대학교 법학과(학사, 석사, 박사)
-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 광주지검 공안1부 부부장검사
- 전주지검 정읍지청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변호사 김 하 중 올림

- ▶ 업무개시 : 2016년 5월 18일
- ▶ 개업장소 : 광주 동구 지산로78번길1 2층(법원앞 광주은행365호 2층)
- ▶ 대표전화 : (062) 375-0008
- ▶ 개업소연 : 2016년 6월 3일(금) 오후 5시부터



Handcrafted by Racers.

The new Mercedes-AMG GT.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정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Mercedes-AMG GT S Edition 1 (3.982cc 1,665kg, 자동7단, 복합연비 7.3km/l (도심연비: 6.5km/l, 고속도로연비: 8.8km/l),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40g/km
※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